



원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52호



2025년 4월호

춘풍에 바람개비 날리는 다리골

모악산 밑자락에 자리 잡은 구이면 다리골 사람들은 마을 앞 나무다리를 오가며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이웃 간 화목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남의 밥을 같이 먹는 잔치를 벌이고,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른다. 따뜻한 봄, 꽃보다 어여쁜 화합의 경이 피어나고 있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교동마을 주민들이 바람개비로 꾸민 나무다리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 원주문화재단 100인 원탁회의 ... 8P ● 삶의풍경 심재를 진소순 이야기 ... 10P

● 원주의 예술인들 도마 작가 여익수 ... 12P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왔어요 ... 14P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

휘둘러 마을 한 바퀴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꽃망울이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모악산 밑자락, 높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구이면 다리골(교동마을)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삼천 위로 놓인 나무다리에 바람이 불 때마다 알록달록 바람개비가 빙그르르 돌아간다. 마을 한가운데 큰 도로가 생겼지만 81가구가 여전히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다.

날 풀렸으니 밭일 시작해야지

나무다리를 건너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텃밭에서 신명숙(71) 씨를 만났다. 파를 심고 남은 작은 땅인데도 놀리지 않고 돌땀이며 나뭇가지를 골라내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곧 열무를 심으려고 해요. 여름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드릴 물김치 만들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각자 열무 2~3단 정도는 길

러 오기로 했거든요. 양념 재료 살 돈이 빠듯하니까 아낄 수 있는 데에서 아껴야죠.”

얇은땀이 의자를 찬 채 호미를 든 손으로는 단단한 흙과 비료를 섞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물질을 골라내는 손질이 재빠르다. 명숙 씨로부터 교동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금방 텃밭 가는 일을 끝냈다.

마을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 과수원에서는 서 씨(75) 어르신이 전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과나무가 60그루고 복숭아는 30그루 돼. 이 나무들도 사람처럼 해마다 손 좀 봐줘야 튼튼하게 열매를 맺지.”

어르신은 가지치기를 멈추고 밭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웃었다. “저기 밭 한가운데 보이지? 뒤쪽이 백구고 앞에 있는 게 장구야. 백구는 풍산개인데 이제 여덟 살, 사람 나이로 치면 나보다 어른일지도 몰라. 낫선 사람만 오면 으르렁거리면서 밭을 잘 지켜.”

다리 건너 맞은편 텃밭에선 김용호(65) 씨가 풀을 뽑고 있었다.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흙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풀을 쓱쓱 뽑아냈다.

“봄이라 그런지 풀도 확확 올라오네요. 풀 안 뽑으면 작물이 풀에 눌러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오전에는 대파 다듬고 오후엔 풀 뽑는 일 했죠. 농촌에선 일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텃밭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며 마을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밥 먹고 꽃피는 마을 산책

점심이 지나면 오전의 서늘한 기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봄인 듯 내리쬐는 햇빛에 꽃이 활짝 핀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담장 위로 핀 꽃나무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봄철 금





왼쪽 위부터_ 노래교실 악보를 보는 어르신, 텃밭에서 풀 뽑는 김용호 씨, 점심 이후 실버카를 밀며 산책하는 김현순 어르신.
 왼쪽 아래_ 하늘에서 내려다본 교동마을 전경.
 오른쪽 위_ 노래교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마을주민들.

방 폈다 질 꽃구경에 빠진 건 마을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바깥 활동 하기 좋은 날 전자근(90) 어르신은 오전에 한 번, 밥 먹고 나서 한 번 산책한다. 지팡이를 짚고 나무다리를 건너 큰 도로 너머까지 오가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묻자, 그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진다. 쿿바람도 쐬 겸 운동하는 게 좋다”고 웃었다. 나무다리를 건너 마을회관 앞에서는 “멀리는 못 나가도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 회관 들어가기 전에 날씨도 좋으니 산책 좀 해야겠다”는 김현순(90) 어르신을 마주쳤다.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 이렇게 좋은 날은 그냥 집에 있으면 아깝고 나와서 좀 걸어줘야 속이 시원해. 가끔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게 더 건강에 좋더라고.”

봄볕에 나서면 바람도 상쾌하고 꽃들이 피어나는 풍경이 마음을 밝게 한다. 이렇게 봄날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볍고 여유롭게 느껴진다.



몸과 마음 모두 들썩, 신나는 노래교실

따뜻한 월요일 오후, 오전에는 각자 다른 이유로 바빴던 마을주민들이 슬슬 마을회관으로 모였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노래교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주일에 한 번 이것 때문에 내가 살어!”라고 말하는 송영자 씨에 이미 회관에 모인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회관 안에 있는 모든 의자를 한곳으로 모아 둥글게 배치하고, 노래를 배우며 먹을 과일을 준비했다. 수업 준비를 마친 어르신들은 어떤 노래를 신청할 건지 머리를 맞대고 쪽지에 노래 제목을 적기도 했다.

이윽고 강사가 도착하자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순서대로 신청한 애청곡을 부르기 시작한다. 의자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몸을 흔드는 어르신,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로 박자를 맞추는 어르신 등 저마다 음악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하다. 애청곡으로 목 푸는 시간이 끝난 후에는 노래 부느라 마른 목을 축이는 간식시간을 가졌다. 시원한 보리차와 달콤한 참외를 나눠 먹으며 “이 노래가 좋다”, “그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떠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간식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진지해진 어르신들은 악보를 들고 새로운 노래, 트롯가수 배금정의 ‘사랑이 두 개’를 배웠다. 강사를 따라 열심히 가사를 외우고 구성진 가락을 부르는 동안 수업 시간은 금방 흘러간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를 배운 어르신들은 남은 과일을 깎아 먹으며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늘 고요하던 교동마을에서 노래교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큰 기쁨이다.☺

곳곳이 살아온 삶의 터전 **여기가 내 집!**

김옥례 어르신

땅에서 나온 게 다 약이지

교동마을 한가운데 놓인 도로 옆을 걷다가 실버 카를 밀고 오는 김옥례(89) 어르신을 만났다. 이날 옥례 어르신은 댁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텃밭에서 쪽파와 돌나물, 봄동을 따오는 길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쪽파 꺾질을 잡아 벗기며 “작년에 심어둔 쪽파가 아직 남아서 다 뽑아왔다”고 말했다. 분주한 손길로 쪽파를 금방 다듬고 나서는 곧바로 돌나물을 손질했다.

“땅에서 나온 게 다 약이여. 봄엔 이게 제일 먼저 올라와. 씹싸름한 맛이 입맛 돋우는 데 최고야.”

교동이라는 행정명보다 ‘다리골’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시절, 옥례 어르신이 기억하는 마을의 옛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다르다. 농토가 부족한 산골이라 벼농사와 함께 채소 농사도 많이 지었는데, 특히 인근 산에 작은 무시(무)를 심어 장에 내다 팔았다. 큼직한 주택이 여유롭게 들어선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어. 문도 안 잠그고 사니까 다들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안부 묻는 일도 잦았지. 지금은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

고된 시집살이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떠나자, 고향인 다리골마을로 다시 돌아온 것이 30년 전 일이다. 그 세월 옥례 어르신은 홀로 네 남매를 키우고 돈을 모아 집까지 지었다. 눈코 뜰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 지나고 요즘 어르신은 오전 9시쯤 일어나 나물을 다듬거나 마당을 정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병원 진료도 혼자서 툭툭 잘 해낸다.

“꼭 먹어야 하는 약 타러 가니까 혼자서 버스 타고 가지. 쉬는 날이면 애들이 한 번씩 데리고 가주는 데 다들 일하느라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북적거렸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남은 이웃들도 하나둘 집을 비우느라 옥례 어르신 댁의 주변은 유독 고요하다. 그럼에도 어르신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여기가 얼마나 인정 넘치는 마을이었고. 지금은 사람도 없고 심심하지만 뭐 어찌겠어. 살아야지. 아픈 걱정, 자식 걱정하다가도 산책하러 나갔다가 밥 먹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고추와 파를 심은 텃밭 앞에 선 김옥례 어르신.

우리 마을의 자라는 끈끈한 단합

이판용 이장

올해 새롭게 취임한 이판용 이장은 따뜻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고자 한다.

현재 마을 현황에 대해 알려 달라

인구수는 81가구 정도인데 외지에서 다니는 분들을 빼면 60가구 정도 된다.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라 옛날에는 원주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마을의 인구가 워낙 많이 줄어서 예전보다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그만큼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끈끈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옛날 모습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을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고 그로 인해 일손도 부족하고 옛 풍습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생일을 챙기고 장례가 있을 때는 상여를 메며 함께 슬픔을 나누던 풍경이 있었다. 그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져 아쉽지만 여전히 정월대보름이나 복날 등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예전의 정을 이어가고 있다.



교동마을 자라는 해보자면 어떤 게 있나

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분위기가 밝고 활기차다는 점이다. 완주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에서 진행한 교육을 들으며 주민들은 ‘님의 밥 먹기 잔치’, ‘노래교실’, ‘폐품 재활용 바람개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 교육을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런 마을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다.

이장으로서 바람이나 소망은

직장생활만 하다 처음 맡은 마을 일이라 아직은 서툴지만 잘하고 싶다. 우리 마을에선 이웃집 소식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주고받는다. 이런 따뜻한 정이 오가는 분위기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

방 한 칸씩 늘리는 재미에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

문이순 어르신

“그 집은 참 부지런해.”

교동마을 사람들에게 문이순(81) 어르신은 익숙한 이름이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마을 이곳저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날도 이순 어르신은 이른 아침 집 뒤에 있는 텃밭에 생강을 심고, 버스 타고 전주 시내까지 나가 기름을 짜왔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 작은 텃밭 있잖아. 거기 원래 작은 방앗간이 있었어. 그래도 기름 짜려면 지금처럼 전주까지 나가야 했지.”

이순 어르신은 들기름을 짜러 간 김에 직접 농사지은 콩도 볶아 왔다. “한 번 볶은 콩에 간장과 물엿을 넣어 졸이면 더 맛있는 콩장이 된다”고 설명한 그는 아직 훈기가 남은 콩을 그릇에 담아 맛보라며 권했다. 인심만큼 고소한 콩을 먹으며 이순 어르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 고향은 구이중학교 근처에 있던 마을이야. 거기서 스물한 살에 다리 골로 시집와서 둘째 며느리인데도 시부모, 시동생까지 다 모시고 살았어. 바깥양반이 별이가 없으니까 내가 다 했지. 채소 농사, 집안 살림살이에 전주 팔복동에 있는 식당까지 나가서 10년 넘게 일했어. 월급 23만 원 받으면서 딸 둘, 아들 셋을 다 키웠네.”

다섯 남매를 키우는 동안에도 이순 어르신의 손은 쉬질 않았다. 일하던 식당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창고도 짓고, 집도 두 차례 고쳤다. 그는 “그때 조금만 더 보냈으면 새집을 지었을 거다. 고생했지만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재미를 느꼈다”며 웃었다.

대가족이 시끌벅적하게 살던 시절은 다 지나고, 지금은 둘째 아들만이 이순 어르신과 함께 지내고 있다. 큰아들은 익산에서 2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서울에 사는 나머지 자녀들도 틈날 때마다 내려온다고 한다. 전문대를 마친 작은딸과 현대에서 일하는 막내아들은 그의 자랑 중 하나다.

팔순이 넘은 나이지만 이순 어르신은 여전히 마당과 텃밭을 오간다. 계절 따라 옥수수, 쪽파, 배추, 생강 등을 심고,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품앗이로 김치를 담근다. 또 요즘은 월, 수, 금요일에 쓰레기를 줍는 공공 근로도 하고 있다. 시간을 그냥 보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움직이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제일 부지런한 이순이”라고 말할 법하다.



마을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한 이순이'라고 부르는 문이순 어르신.

대대로 나라위해 헌신 국가유공자의 집

이미자 어르신

이미자(88) 어르신은 지금까지 다섯 남매를 키워낸 강한 어머니이자 참전용사 남편의 아내로 살아왔다. 어르신의 외할아버지는 여중모 독립운동가(오른쪽 사진)로 그 집안은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우리 집 대문에는 국가유공자 명패가 붙어 있지. 남편이랑 외할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거야. 옛날부터 그 명패 하나에 명예와 자긍심이 있어.” 어르신에게 그 명패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가족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책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다.

미자 어르신은 스물한 살에 교동마을로 시집와 정착해 살고 있다. 4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왔다. 남편은 약초를 캐서 팔았고 50살이 되던 해에는 전주로 나가 3년 정도 살면서 골목 식당을 시작했다고 한다. 작은 식당에 탁자 7개를 놓고 12가지 음식을 만들었으며 배달도 했다.

“내가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니까 가능했지. 새벽부터 준비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어. 그래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걸 보면 피곤한 줄도 몰랐지.”

음식을 오래 해온 덕분인지 요즘에도 어르신은 자식들을 위해 파김치 한 통을 담그며 “맛이 옛날 같지 않다”고 웃는다.

“막내 딸이 김치 좀 담가달라고 했거든. 김치는 어디 가서 사 먹어도 얼마 맛이 안 난다며 자꾸 날 찾아. 그래서 또 안 담가줄 수가 있어야지.” 이제는 자식들 걱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에게 마음을 다잡게 해준 건 믿음이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남편 살아 있을 땐 같이 교회도 다녔지.” 91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어르신은 그를 떠올리며 좋은 기억을 되새긴다. 두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레 미소가 번진다.

“언젠가는 다 가야 하는 길이지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을 만큼 손맛이 좋은 이미자 어르신.



이 집이 품은 이야기

수선화 활짝 핀 광순임 어르신 댁



수선화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집

교동마을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30년. 광순임(76) 어르신은 수선화가 흐드러지게 핀 마당과 넉넉한 밭 150평을 돌보며 혼자 살아간다. 이 집은 주말이면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와 웃음꽃을 피우는, 말하자면 ‘펜션’ 같은 곳이다. 손수 키운 텃밭에서 갓 딴 채소를 씻어 내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마당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진다. 그 냄새를 따라 다들 둘러앉고 이야기꽃은 그때부터 피어난다. “이젠 혼자 살아도 외롭진 않아. 이 집도 나도 이제는 익숙하거든. 계절이 오고 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장작불이 지키는 별채 아궁이

본체는 도시식 가스보일러가 들어와 있지만 마당 옆 별채는 여전히 장작을 태운다. 어르신은 이 방에 가끔 불을 지핀다.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면 밤새 방이 뜨끈해져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을 만큼 훈훈하다. 아궁이는 단지 난방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감자를 굽고 찌개를 끓이며 어르신의 하루를 채우기도 한다. 불 앞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고 있노라면 아궁이도 사람도 천천히 따뜻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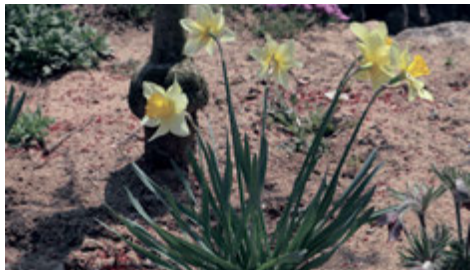
마당과 텃밭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마당과 텃밭 일을 하는 날로 정했다. 150평의 넓은 마당과 텃밭에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강과 도라지를 심고 마당을 쓸고 때로는 잔디도 관리한다. “이 날만큼은 뭐든 해. 꽃도 보고 풀도 보고 나무도 살펴야 하니까.” 어르신은 일주일마다 두 번, 이렇게 마당과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보낸다.



길고양이 출신 희망이

어느 날 마당에 나타나 밥을 먹고 가던 고양이 한 마리. 하루, 이를 밥을 챙겨주다 보니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렇게 ‘희망이’는 어르신 집에 머물게 됐다. 길 위에서 왔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편안한 얼굴로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다. 함께한 지 1년. 이름처럼 기분 좋은 희망을 가져다준 고양이이다.



꽃이 있어야 집이 산다

“보면 기분 좋잖아. 괜히 심은 거 아냐. 허전하니까.” 집 마당엔 뭐든 하나쯤은 피어 있다. 담장 따라 개나리가 노랗게 올라오고 매화나무 옆으론 쥐뿔나무가 자리를 잡았다. 봄이면 제비꽃이 귀엽게 피고 가을이면 단감이 주렁주렁, 소나무도 하나 세워졌다. 보기 좋으라고. “할미꽃? 그건 그냥 이쁘더라고. 심어놓으니까 마당이 흰해져서 좋지.”

“빛깔 고운 한지 만들던 손으로 활력 넘치는 마을 일구었지”

노인회장 신명숙 씨

교동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보니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삼농사와 닥나무 농사가 대부분이었는데, 마을 주변에서 생산되는 닥나무 품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했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가 많은 이곳에서 한지 공장을 운영하는 주민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신명숙(71) 씨 부부였다. 그는 “닥나무는 일정한 크기가 되면 계절에 상관없이 베어내서 삼천변에 있던 삼굿에서 썬다. 썬 닥나무에서 껍질을 벗기고, 그걸 줄에 넣어서 말리는 풍경이 집마다 펼쳐졌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태어난 명숙 씨는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구이면 교동마을로 귀촌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가내수공업 형식의 작은 한지 공장을 살뜰히도 운영했다. 당시 주로 화선지와 색지를 제작했는데 이렇게 생산한 종이는 전주 지업사로 보내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교통사고로 다친 후에는 이전처럼 일하는 것이 힘들어 공장을 접게 되었다.

“지난해 마을 사람들이랑 대승한지마을로 놀러 갔었어요. 뜰채로 물에 불린 닥나무 껍질을 건져내 한지 만드는 체험을 했는데, 20년 넘게 안 했어도 몸에 익힌 기술은 그대로인지 나는 한 번에 해내더라고요. 다들 그걸 보고 놀라서 칭찬하니 기분도 좋고 재미있었어요.”

한동안 집안 살림과 밭농사에 전념했던 시간이 지나, 2015년 명숙 씨는 교동마을의 이장이 되었다. 마침 동성에서 교동을 거쳐 염암신기까지 이어지는 제방이 축조됐다. 하천 정비와 제방 축조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명숙 씨의 주도로 마을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빨래터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이장을 세 번 연임하고, 현재 노인회장직을 맡아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마을 경관 조성, 완주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의 마을자치 리빙랩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활발히 이끌었다. 또 사비를 조금씩 모아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세웠다.

“다른 마을 가면 무슨 마을이라고 다 이름 적힌 표지석이 있는데, 우리 마을만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3~4년 전에 세웠죠. 표지석 만들어준 업체에서 뒷면에 내 이름을 새기라고 권했는데도 그냥 웃어넘겼어요. 굳이 그렇게 생색낼 필요가 있겠어요? 각시가 세운 거라고 투병하던 신랑이 집에서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 만져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 봤으면 충분하죠.”

현재 딸과 대학생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사는 명숙 씨의 바람은 지금처럼 바쁘고 유쾌하게 사는 것이다.☺



위_ 사비를 모아 세운 교동마을 표지석 옆에 선 신명숙 씨.

아래_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의 마을자치 리빙랩 사업을 함께하는 마을주민들과 명숙 씨(왼쪽에서 세 번째).

군민 100인이 제안한 문화예술관광의 미래

완주문화재단 10주년 원탁회의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3월 28일(금),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완주문화예술관광 100인에게 듣다』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완주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문화예술관광 생태계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문화예술인, 기획자, 관광 실무자, 정책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원탁회의는 현장의 말들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1부 '탐색'(성과 발표 및 기조 발제) ▲2부 '발굴'(주제별 원탁회의) ▲3부 '제안'(그룹별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탐색

완주문화예술관광의 오늘과 내일

1부 탐색은 완주문화재단 송은정 문화예술사업국장의 「완주문화재단 10년의 기록 - 문화로 그리는 내일」 발표로 시작되었다. 그는 '문화시민과 함께 성장한 10년', '예술이 일상이 되는 예술의 도시', '다름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도시', '로컬의 매력을 담아낸 콘텐츠', '지역문화예술의 허브로 자리잡은 문화공간' 등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완주문화재단이 지난 10년간 지역과 주민이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을 짚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서울문화재단 김해보 전문위원은 「<매력이 도시 경쟁력>인 <나의 문화> 시대에 지역문화재단의 변화 방향 찾기」라는 제목으로, 최근 지역문화정책의 흐름과 문화재단의 변화 방향을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문화재단이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서 '문화(COM)'와 '관광(DMO)'을 융합하는 통합 실행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역문화재단이 '나의 문화'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연결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개발 중심 문화정책이 아닌, 사람 중심의 '문화적 자기화(文明自化)'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화정책의 오늘과 내일

문화재단에서 정책의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사람과 현장, 시간이 아닐까요? 때문에 재단은 끝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많아졌지만, 이 활동 안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읍·면별, 마을별 풀뿌리 주민자치와 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즐기는 문화예술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전업 예술가로서 나의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술가가 지역 안에서 머물고 가치를 품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지난 3월 28일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열린 『완주문화예술관광 100인에게 듣다』 원탁회의의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2부 발굴 100인의 원탁회의

2부 ‘발굴’에서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 활동하는 100여 명의 목소리를 모으는 주제별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내가 즐기는 문화예술 ▲문화정책의 오늘과 내일 ▲예술하기 좋은 도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기획자의 실험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 등 총 8개 주제로 진행된 원탁회의에서는 완주문화·예술·관광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생한 의견이 오갔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완주의 문화예술교육은 성과 대신 과정을 드러내고, 교육의 형식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기획자입니다. 지역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기획자가 질문하고 실험할 수 있는 정책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획자의 실험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완주의 문화예술교육은 성과 대신 과정을 드러내고, 교육의 형식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완주 관광의 거점을 만들고,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이 모든 과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화, 정책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같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역 곳곳에 많습니다. 우리에게 불평등을 말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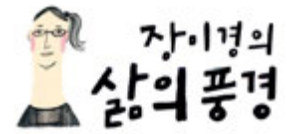
제안 현장의 목소리가 모이는 순간

100인의 주제별 원탁회의가 종료된 후 진행된 3부 ‘제안’에서는 각 주제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완주 문화예술관광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형 예술인 공공소득제도 등 완주에 특화된 예술인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문화기획자 등 전문인력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 재단 내 정책기능의 중요성과 민관 거버넌스의 실효성,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초등교육에 집중된 문해교육이 중등, 고등 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장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완주문화예술관광 100인에게 듣다’는 지금까지의 10년을 통해 앞으로의 완주를 주민, 문화예술인, 관광 관계자 등과 함께 설계하는 시작점이었다.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은 향후 완주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및 완주문화예술관광 진흥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모인 100명의 목소리가 완주의 문화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게 될지 기대해 봐도 좋겠다.👏





삼례음 전소순 할머니 이야기

옛사람들은 사람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즐겨 비유했다. 여리고 풋풋한 어린 시절은 봄, 뜨거운 만큼 서둘러 지나가는 젊은 시절은 여름, 나보다 훌쩍 더 커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중년은 가을, 조금은 쓸쓸해도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노년은 겨울에 빗대어졌다. 하지만 꽃 피는 봄은 어린 사람에게든, 늙은 사람에게든 어김없이 똑같이 찾아온다. 누구에게라도 꽃 피는 봄은 다시 찾아오는 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제

지금도
내 인생의
진정한 봄날!

공하는 완주군의 '진달래학교'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 올해로 여든여섯이 된 전소순 할머니에게도 이 산 저 산 진달래꽃이 만발한 봄이 다시 찾아왔다.

“그때 내 나이가 73살이었어. 남편이 79살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친구 하나랑 진달래학교를 다닌 거야. 처음 갔더니 노인네들이 서른 명 정도 있어. 선생님이 다섯 명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연필도 잡을 줄 모르고 모두가 아무것도 몰랐지.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어찌다 보니까 글씨가 써지더라고. 글 쓰는 것에 취미를 붙이고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재밌게 배우고 살아. 나는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워. 한 시간 반 공부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워. 지금은 A, B, C, D 영어도 배워.”

칠십이 넘어 진달래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을 알게 되니 인생이 당당하게 변했다는 전소순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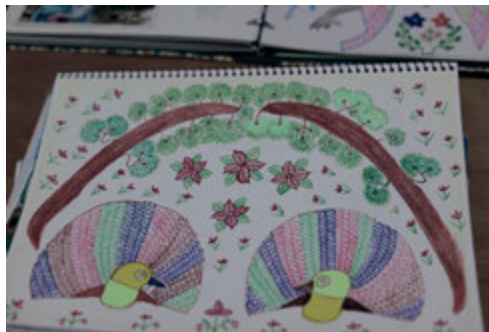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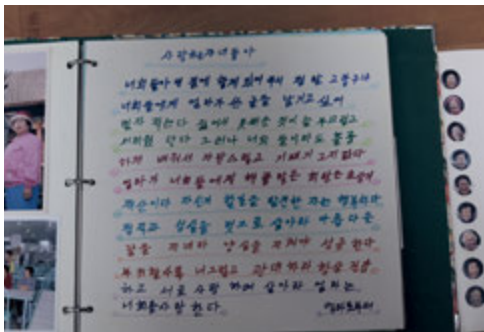
2017년, 완두콩에서 발행한 <완주할매들의 인생손글씨 할미그라피>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전소순 할머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부지런히 기록하고 있다. 70년 된 부러진 감나무를 주제로 시를 쓰고, 손자들에게 편지도 쓰고, 꽃과 나무를 화려한 색채의 그림으로도 그렸다. 손자들과 자식, 사위들이 사다 준 스케치북과 색연필, 오래 써서 짧아지고 닳아진 연필과 지우개 같은 것들이 초등학교 공부방처럼 할머니의 집안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인생의 봄날은 그래도 큰 고생 없는 좋은 시절이었다고 했다.

“내 고향은 임실군 청웅면이야. 딸 넷 중에 막내고 내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언니 셋은 비단, 광목, 실 공장에 다니면서 살림 밑천을 벌어들였지. 그 돈을 우리 아버지는 허투루 쓰지 않

넛에 중매로 이곳 삼례로 시집을 왔다. 그렇게 가리고 가려서 시집을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오두막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었다고 한다. 남편은 순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인 능력은 별로였다고 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역척스러운 여름과 가을이 시작됐다.

“스물다섯 살 동짓달에 첫아기 딸내미를 낳았어. 그런데 배는 고프고 세상 참 힘들었어. 하도 배가 고파서 내 저고리 옷감을 신랑보고 쌀 팔아 오라고 했지. 근데 그 돈으로 노름을 해버리고 빈손으로 오는 거야. 배가 고파서 언제나 오나 연탄불에 밥술을 올렸다 내렸다 새벽 내동 그러고 있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야. 그래도 미운지도 모르고 싸움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 거지. 그래도 주인집 큰방 아줌마가 시래기 국을 끓여서 밥이랑 한 대접을 가져다 줬어. 그걸 나눠 먹

“내 나이 쉰 살 무렵부터 폐백을 한 거야. 처음에는 목을 끊어서 피로연 음식으로 납품을 했어. 목 끊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메밀묵 두세 판씩 만들어서 납품한 거지. 그 뒤로 오징어 오려서 장식하는 폐백음식을 만들었어. 오징어를 그냥 오리면 안 돼. 가운데 뼈다구를 갈라 내고 다리 떼어내고 하얀 면보 깨끗한 것을 깔아. 그 위에 오징어를 착착 올려놓고 천을 덮어서 발로 잘장잘장 밟아. 한 시간을 밟으면 납작하고 반듯하게 퍼져. 주름살 하나 없이 퍼져. 그럼 그 판판해진 오징어 가운데를 잘라서 가위로 세심하게 가늘게 오려서 작업을 하는 거지. 자르면서 하나 하나 손으로 말면서 작업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밤도 하나하나 까서 쌀뜨물, 설탕을 타서 저녁 내내 담가 놓고 그랬지. 대추는 가운데 실을 꿰서 뱀이 딱리 틀 듯이 뽕뽕 돌려서 탐처럼 쌓아 놓는 거야.



자녀들에게 쓴 편지, 폐백음식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린 그림과 필기구들.

고 다 모아서 논 사고 밭 사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나는 괴로운 것 없이 컸지. 친정어 먹고 살만 하니 언니들도 시집을 가고 나랑 남동생은 어려운 시절 지나서 태어나서 별로 고생 없이 자랐어. 아버지가 우리 순옥(어린 시절 이름)이는 비단 공단에 감아서 키운다고 그랬어. 임실 장날에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30리 길을 걸어 장에 갔다 오면 꼭 내 비단 옷감을 떠왔어. 빨강 치마, 노랑 저고리를 만들어서 좋게만 입혀서 내보내고 그랬지. 그런데 일정시대에다가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학교 공부를 못 배웠지.”

할머니는 열다섯에 서울로 올라가 남의 집 심부름도 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 남동생 결혼도 시키고 아버지 농기계도 사드렸다. 공장 다닐 때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함부로 연애하면 다리몽매이를 부러뜨린다는 아버지의 엄포에 제대로 연애 한 번 못해보고 스물

있지. 두 살 터울로 여섯 남매를 낳고 키우는 동안 삼례에서만 이사를 열두 번을 넘게 다녔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 삼례시장 안에 집을 샀지. 그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내 시계 팔고 반지 팔아서 마련했지. 셋방살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내 집을 산 거야. 거기서 육남매 다 학교 보내고 키웠어. 고추 장사, 쌀 장사, 식당, 농사 일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고 살았어.”

요즘 결혼식에서는 폐백음식이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 전소순 할머니는 제법 솜씨 좋은 폐백음식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쉰 무렵부터 어렸을 때 변화하고 제사가 많았던 친정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폐백 일을 시작했고 일흔이 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 젊은 엄마들 서너 명에게 폐백음식 전수하는 솜씨 좋은 선생님이었다.

할머니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이 드물게 화려하고 꼼꼼한 터치가 많아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폐백음식 전문가셨다니 그 그림들의 색채와 스타일이 어디서 연유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다. 그렇게 길고도 힘들었던 인생의 여름과 가을이 가고 일흔이 넘어 글을 배우고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봄 같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의 글씨 연습장에는 좋은 말들이 가득했다. 그 좋은 말들에 봄날의 새순처럼 세상에서 제일 보드랍고 고운 단어들만 골라 손끝으로 정성스럽게 꼭꼭 눌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한글을 몰랐을 때는 창피하고 답답한 것이 많았는데 칠십이 넘어서야 진달래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을 알게 되니 내 인생이 얼마나 당당하게 변했는지 알랑가 몰라.”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08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한다.

나무의 본성을 찾아가는 시간

도마작가 여익수

“작가라 불리는 게 쑥스럽네요. 아직은 목수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여익수 씨는 목수이자 작가다. 목수는 생활을 위해 선택한 직업이다. 그는 조각을 전공했다. 그가 대학생이던 1990년대는 개념미술과 설치미술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그 또한 시각적인 미를 추구하는 전통미술보다 작품에 내재한 관념을 추구하는 개념미술에 끌렸다.

“그렇게 한동안 유행을 쫓았는데 어느 순간 식상해 지더라고요. 그때가 한일월드컵이 지난 뒤였으니 2004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전통 조각에 마음이 간 게.”

생각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려는 순간 공방 생활을 같이하며 믿고 의지하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스승은 전통 조각을 고집했던 사람으로 그와 추구하는 바가 달랐지만 항상 예술적 본보기가 되어주고는 했다. “그분의 조각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분의 감각이나 기술, 자세, 철학 까지도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상실감이 컸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는 목수가 된다.

왜 하필 목수였나요

당시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도저히 작품 활동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결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겪어온 게 너무 적더라고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죠. 그나마 나무를 다루는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여익수(왼쪽) 작가와 그의 스승.

교류도 없이 단절되어 혼자 일만 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불안해하고 걱정했죠. 외부 활동을 통해 활기를 찾기 바랐던 것

요? 원목을 보면 나무가 갖고 있는 결과 모양새가 있어요. 그 안에서미를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원목을 가만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형상이 찾아져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의 어떤 향수도 느껴지고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즐겁더라고요.

추구하는 작품세계가 궁금합니다

도마라는 게 실생활에 쓰이는 생활도구잖아요. 이게 벽에 걸어두고 보는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긴 북유럽 사람들은 목공으로 소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들 가정에 장식되어 있는 도마들을 TV 같은 데서 종종 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목의 본성을 드러낸 도마가 누군가의 응접실에 장식되어 있는 장면어요.

어떤 나무를 주로 쓰세요

나무마다 특색이 있어서 특정 나무만 고집하다 보면 작업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10여 가지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느티나무고 캄포나무나 호두나무, 제브라도 많이 씁니다. 저럼



예술 활동을 접은 건데 아쉽지 않았나요

한동안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예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당시 저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한데 그게 목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수와 작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시를 목적으로 작업하느냐 판매 목적으로 작업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미를 추구하느냐 실용성을 더 추구하느냐의 차이도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 작가라는 말이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여전히 상품 제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텐데요

작년인가요? 아내가 공모전이 있다면서 참여를 권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사람도 안 만나고 세상과의

같이요. 그렇게 그룹전에 참여했습니다.

도마를 작품 소재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생업으로 야외테이블을 주로 만들어 팝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공방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도마였어요. 이 도마도 처음에는 팔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걸 보고 전시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품 활동을 더 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 부대끼면 갇혀 있던 삶이 외부로 열리는 기분입니다. 제가 활기차니까 집에서도 좋아합니다. 전시회 이후 목공 수업도 나가고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나 주민들과 목공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즐겁네요.

도마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를 쓴다고 할까

하면서 매력적인 너도밤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단한데 가공이 쉬워서 좋아요.

작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새와 물고기, 고래, 떠오르는 해 등을 형상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첫 작품은 <결눈질>인데 새가 결눈질하는 형상이어서 붙인 제목입니다. 처음 원목을 만났을 때 부리와 머리, 날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대개의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삶은 항상 실수의 연속이고 잘못된 반복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가질 수 없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품은 것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저 자신도 좀 변해야 할 것 같아요.🍎

봄철 바쁜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

완주농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왔어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완주에 왔다.
지난 3월 25일 입국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필리핀(팔로시, 미나시) 국적 42명으로, 이 중 11명은 성실 근로자로 선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재입국했다.



로날린 주디스 씨와 송현선 대표



로날린 씨



농장주의 따뜻한 배려가 좋아 다음에 다시 일하러 오고 싶다는 로날린 씨.

돈월드딸기농장

근로 2회차 로날린-주디스 씨

밝은 성격에 일도 금방 적응

삼례읍 신금리에 위치한 돈월드딸기농장에서는 필리핀 미나시에서 온 로날린(37), 주디스(39) 씨가 일하고 있다. 향긋한 딸기향으로 가득 찬 온실 안에서 근로자들과 송현선(38) 대표를 만났다. 그는 단단한 과육과 달콤한 맛으로 유명한 금실, 설향 품종을 재배, 완주군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송현선 대표는 “운영 중인 농장이 육묘장을 포함해 2,400여 평이라 바쁠 때 인력이 절실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덕분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일하는 딸기 농사의 특성상, 근로자들은 오전 5시쯤 나와 일을 시작한다. 로날린 씨는 “꽃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꽃잎을 슈아내고, 안 좋은 열매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생소해도 금방 적응해서 가르쳐 준 대로 잘하고 작업 속도도 빠르다”고 웃었다.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 8시간씩 일해요. 휴식이 더 필요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추가로 쉬도록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밝고 성격도 좋아서 같이 작업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또 작업과 뒷정리를 꼼꼼하게 잘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5개월 동안 근무하지만, 농가에서 요청하면 최대 8개월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 서류 및 비자를 준비한 근로자들은 2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들어온다.

4월 말 출국을 앞둔 로날린 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꼈다. 특히 사장님이 배려해 준 덕분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없었다. 딸기 수확 전 여유가 있을 때 농장 직원들과 함께 동물원에도 가고, 회식도 했던 경험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다음에 또 이 농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장주도 근로자도 교육통해 서로 적응 ... 군청서 기숙사도 건립 준비 중



백하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웨날린(왼쪽에서 네 번째) 씨와 동료들, 통역 도우미 김여진(왼쪽에서 세번째) 씨, 이승용(맨 오른쪽)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백하딸기농장

근로 3회차 웨날린 씨와 동료들

“통역 도우미가 농장용어 알려줘 큰 도움”

돈월드딸기농장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하리의 백하딸기농장에서도 필리핀 람로시에서 온 웨날린(39) 씨가 일하고 있다. 이번이 3회차인 그는 농장 일에 익숙하고, 한국어도 잘 아는 편이라 농장의 매니저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 웨날린 씨는 “딸기 수확은 거의 끝났고 빈 꽃대를 정리하고 있다”며 직접 꽃대를 꺾어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지 묻자, 그는 “만약 한국어를 더 잘 한다면 사장님이 지시하는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00%를 다 채우지 못하고 80% 정도만 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백하딸기농장 이승용 대표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일하는 동안 최대한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한다. 또 우리도 번역기를 잘 활용하고 있어서 의사소통 문제가 크진 않다”며 웃었다.

“실질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역시 문화적인 차이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 같아요. 농가가 알 수 있는 근로자들의 정보가 많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언어 통역 도우미를 쓴 적은 없지만, 만약 문제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안심돼요.”

입국한 근로자들은 농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완주형(법무부) 조기적응 교육을 받고 농가로 배정되기 전 농작업 실습교육에 참여한다. 농장주들은 고용지침서를 바탕으로 4~6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다. 이 덕분에 근로자들은 한국 생활과 농작업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고, 농장주들도 초기 농작업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웨날린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군청 담당자분이 도와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특히 언어 통역 도우미가 주기적으로 숙소에 방문해 농작업에 주로 쓰이는 용어를 많이 알려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현재 돈월드딸기농장과 백하딸기농장을 포함한 농가 대부분은 농장 근처 아파트나 빈집을 임대하여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두 농장의 대표들은 “완주군에서 계절근로자 기숙형 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그게 잘 해결되면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는 데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기대를 모았다. ☎



웨날린 씨와 동료들



딸기농장 작업 환경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완주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하는 동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실근로자 모범 작업단 운영 ▲농가생활 조기적응 교육 ▲마약 검사비 및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 ▲언어 소통 도우미 배치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MOU 협약 도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캄보디아에서도 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법무부 배정 승인 인원은 420명으로, 현재 공공형(고산농협) 30명, 농가형 147명, 결혼이민자 초청 가족 45명 등 총 222명이 일손을 보태고 있다.

반갑습니다

신임 이사장 2인

“조합이 지속가능하도록 안정과 연대 주력”



권승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제5대 이사장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난 3월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5기 이사장에 권승환 후보를 선출했다. 제4기 이사장을 역임한 권승환 이사장은 “새로운 임기는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재선 축하하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벽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조합이 지속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외부적으로는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임기 내세운 공약의 성과와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는지

조합원 간 오해와 소통 부재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고자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고, 결산자료를 포함한 각종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등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조합은 10억 원 이상의 누적 적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적자가 큰 사업장을 정

리하고,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매주 주간 회의를 통해 매출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 유입을 늘리고자 노력한 결과, 임기 동안 조합은 지속적인 흑자를 달성했고, 특히 2024년에는 조합 설립 이후 최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을 위해, 저는 소농·고령농·여성농 등의 생산을 독려하고자 기획생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출하 지원을 확대했으며 고령농 복지제도와 경조사 지원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에서 꼭 실천하고 싶은 정책은

지난 4기가 ‘준비’였다면, 이번 5기는 ‘도약’의 시기입니다. 완주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조합원과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외부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 확대 및 관리비 절감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매출 활성화와 판로 다각화를 위해 조합원 품질 교육과 전 품목 작목반 조직화를 추진하여, 소농·고령농·영세농을 보호하면서 조합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직원-지역사회가 행복하게”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제6대 이사장

박일진 씨가 지난 1일 완주한우협동조합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1998년 귀농한 박 이사장은 한우협회 완주지부와 도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완주한우협동조합 창립을 함께한 뒤 총무이사로 일해왔다.

심경이 어떤가

만감이 교차해요. 경선에서 이겨 기쁜 마음도 있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잖아요. 책임감이 제일 크고 우선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운영 방향은

창립 정신이라고 할까요. 처음 완주한우협동조합을 만들 때 생각한 게 있어요. 조합원이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도 행복해야 한다. 그럼 조합원과 직원만 행복하면 될까. 그건 아니었어요.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이 세 주체가 행복해야 지속가능합니다. 지금 이 초기의 정신이 되새기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

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생산비는 오르고 소 값은 떨어져 조합원들은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우선 할 일은 소 값을 제대로 주는 겁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권익 증진도 고려해야죠. 다음은 소통 문제입니다. 소통구조가 막히면 구성원 간에 오해가 쌓여요. 소통구조 확보가 시급한데 3개의 자문위원회 설치가 그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있는 흥천한우사랑말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 반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끝으로 한 말씀

조합원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에게는 그동안 애써줘서 고맙다는 말씀, 소비자들에게는 앞으로도 좋은 고기로 보답하겠으니 신뢰하고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키워드 - 불공평해!

피야 린덴바움 지음 | 김삼미 옮김 | 베틀북

선을 넘지마!



모든 책이 그렇겠지만 이 책은 특히나 질문이 넘쳐나는 책입니다. 요즘의 시국과 사회 분위기에서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질문으로 넘치는 아이들, 불공평을 좋아하는 대장, 오직 대장과 아이들만 존재하는 세계 등 동화 같은 풍경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읽을수록, 생각을 조금만 더 뻗어보면 소름 돋는 상상이 늘어납니다. 반절의 아이들은 놀이 하고, 읽고, 노래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빨래, 감자 깎기, 돌 나르기, 설거지 등은 다른 반절의 아이들이 모두 담당합니다. 대장이 불공평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놀이하고 책 읽고 노래하던 아이들이 '불공평하다'고 대장에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과 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책 속 아이들뿐만 아니라 책을 읽던 아이들도 어느새 '불공평해!'라고 말합니다. 뜻을 완벽히 알지 못했을 지라도 9~10세 아이들도 불공평하다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이니 실제 경험하고 있는 책 속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내 책 속과 책 바깥의 아이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아이들과 책 속 놀이하고 책 읽는 아이들이 다르지 않았고, 불공평하다는 말을 오히려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아이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에게서 불공평하다는 말을 듣게 되니 양쪽의 아이들이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책 속 아이들 간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대장이 불공평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그룹이 다르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정한 것을 아이들이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선을 넘어도 처벌받거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장은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는 동안 아이들과 나는 '불공평해!'라고 말하며, 선을 넘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책은 동화와 현실이 겹쳐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떤 질문들이 떠오를까요?

감나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설레

#70 4월의 대유행

빈 공간에 풍선은 놓아 상대팀은 이겨내는 게임 '크레이저 아케이드' 폭 빠져있던 학생서원 ...



교과서 글자 사이사이에 풍선이 보이던 그때다 날아...



고사리에 바진 4월의 제주



눈만 감으면 아른아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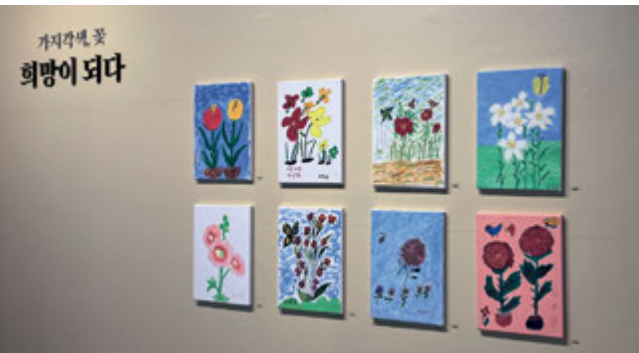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화정마을 할머니 12명 '가지각색, 꽃' 전시회

고산면 화정마을 할머니 12명이 작가로 데뷔했다. 평균 나이 81세로 붓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이들이었다. 이번 데뷔는 전북일보의 '청년이장이 됐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다.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전북일보가 협업해 마련했다. '하얀 양옥집'의 2025년 첫 기획 전시인 '가지각색, 꽃'으로, 4월 27일까지 열린다.

화정마을 할머니들은 매화꽃, 백합, 수선화, 무궁화, 튜립,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 그림 23점을 직접 그렸다. 실제 전북에서 활동 중인 김삼열·이일순 부부 작가의 도움을 받아 꼬박 만나질 걸려 완성했다

평소에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 조재신(87)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생각하면 살아야겠고 그래도 아픈 것 생각하면 죽으면 끝 아닌가 하고 살았다. 마음으로는 다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 못 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다"며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잃었던 희망을 찾았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서 잃었던 희망을 되찾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할머니 중 최연장자인 이장순(90) 할머니는 "할 줄도 모르고 팔뚝이 아파서 그림 그리는 내내 힘들었다. 그래도 기사님들, 작가님들이 같이 그림을 그려 줘서 재미있었다. 젊었을 적 산악회에 다니면서 본 해바라기 그려봤다"며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 기간_ ~4월 27일까지
- 장소_ 전주시 경기전길 67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라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다스림을 위한 축언의 기도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6) 젠킨스의 [베네딕투스 Benedictus]



스캔하시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지난겨울 뜬금없는 계엄으로 온 나라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진 탄핵으로 나라는 여지없이 두 쪽으로 갈라져 살벌한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계엄 무리의 험한 발버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쪽에서도 그에 뒤질세라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 성정도 매우 거칠어지고 말았습니다.

탄핵 인용으로 극한의 위기는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들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긴요한 것이 말을 순화시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가파른 말들은 우리들 감정을 더욱 격화시킵니다. 저주와 욕설과 분노의 아우성은 우리 정서를 극단으로 내몰 뿐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시 하나를 나지막하게 읊조려보는 것이 한 방책일 수 있습니다.

“외치지 마세요/ 바람만 재티처럼 날아가 버려요.// 조용히/ 될수록 당신의 자리를/ 아래로 낮추세요.// 그리구 기다려 보세요./ 모여들 와도// 하거든 바닥에서부터/ 가슴으로 머리로/ 속속들이 굽이돌아 적셔보세요.// 허잘 것 없는 일로 지난날/ 언어들 고되게/ 부러만 먹었군요.//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 할 때// 허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신동엽 시인의 「좋은 언어」)

이런 음악이 동반된다면 더욱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칼 젠킨스(Karl Jenkins, 1944~)의 「베네딕투스」! 이 곡은 젠킨스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

화를 위한 미사』(The Armed Man: A Mass for Peace)의 중심 작품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음악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미사곡은 깊은 감동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 「베네딕투스」는 극적인 대비와 감성적인 선율로 유명합니다. 초반의 잔잔한 관현악 반주는 고요 속에서 다가오는 희망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곧 이어 첼로 독주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곡 전체의 정서적 중심을 이룹니다. 첼로 선율은 부드럽고 명상적이면서도 절절한 감정을 담고 있는데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연주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점진적으로 더해지면서 장엄한 분위기로 발전합니다. 특히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는 가사가 울려 퍼질 때의 웅장함은 숭고한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조화는 단순한 선율이지만 다양한 악기와 합창이 쌓이면서 점점 더 깊고 웅장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평화를 위한 미사』 전체 작품이 전쟁과 평화의 극명한 대비를 표현하고 있다면 이 곡 「베네딕투스」는 그중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앞선 곡들이 격렬한 분위기를 띠는 것과 달리 차분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종교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희망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를 노래하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우리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젠킨스가 만들어낸 감성적인 선율은 우리 내면의 평온함과 위로를 찾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칼 젠킨스는 웨일스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가로,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음악에서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뉴에이지 요소를 혼합하여 강렬한 리듬과 선율을 창조합니다. 그는 반복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 등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대표작인 「아디에무스」("Adiemus")에서처럼, 가사 없이(아니면 최소화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목 「베네딕투스」는 라틴어 '좋은'(bene)과 '말'(dictus)의 결합으로 영어로 하면 축복, 축원 혹은 축언에 해당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축복의 말' 뜻을 넘어 신을 찬양하고 거룩한 존재를 맞이하며 경배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며 분노와 공포로 강박해진 우리들 마음 달래며 희망의 불씨 소중하게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조용히 속삭이면서!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케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동상면 '숨은골약주', 전북 대표 건배주로 선정

동상면 단지마을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공동체공간 수작(대표 이진영)에서 생산한 '숨은골약주'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약·청주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4개 부문에서 주종별로 으뜸 주 1점을 선정했으며 '숨은골 약주'는 약·청주 부문을 대표하는 건배주로 인정 받았다.

'숨은골 약주'는 쌀, 누룩, 물로 두 번 발효한 후 10개월 이상 저온 숙성해 깊고 부드러운 풍미가 일품이다. 특히 예전 누룩 방식으로는 내기 힘든 조화로운 맛과 향을 가지며 전통 양조 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콩가루 가족의 좌충우돌 여행기

김영혜의 **영화산책**

(3) 미스 리틀 선샤인(Little Miss Sunshine)

한 마디로 '콩가루 가족'이다.

리처드는 '성공의 9단계'라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강연하러 다니는 중년 프리랜서이다. 아내 웨릴은 그나마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다지 잘 나가는 곳은 아닌 듯하다. 15살 아들 드웨인은 전투기 조종사가 될 때까지 묵언 수행 중이고, 7살 막내딸 올리브는 어린이 미인대회에 나가고 싶어 안달을 한다. 마약을 하다 요양원에서 쫓겨난 할아버지는 올리브의 미인대회 준비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이들과 같이 산다. 벌써 아슬아슬한 이 가족에 웨릴의 남동생이 새롭게 합류한다. 아이들의 외삼촌 프랭크는 프루스트 전문학자이자 동성애자이다. 학계의 경쟁자에게 큰 상과 애인마저 빼앗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그는 혼자 두면 안 된다는 병원의 판단에 따라 웨릴을 따라 이 가정에 들어온다.

리처드는 희망 없는 출판계약을 따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생계에 지친 웨릴은 늘 인스턴트 음식으로 저녁 식탁을 차려 할아버지의 분노를 산다. 좁은 방에 함께 기거하기로 한 삼촌 프랭크와 드웨인의 동거는 숨막히는 긴장을 자아낸다. 이런 가족구성이라면 독자들은 틀림없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영화를 떠올리게 될 것



조나단 데이톤, 발레리 페리스 감독, 그렉 키니어, 토니 콜렛 주연, 2006, 미국

이다.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이 그러하니 말이다. 그런데 아니다.

이 영화는 참으로 유쾌하고 발랄하다. 그래서 우울할 때면 간혹 떠올리게 된다. 유쾌한 분위기를 이끄는 존재는 단연코 막내딸 올리브이다. 자본주의 문화의 가장 타락한 한 형태인 미인대회 참가를 이 어리고 천진난만한 올리브는 간절히 꿈꾼다. 그런데 올리브는 배가 볼록 나온 통통한 몸매에 동그란 안경마저 끼고 있다. 한 마디로 미인대회 감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올리브가 너무도 간절히 어린이 미인대회 참가를 원하고, 올리브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 역시 강력히 참가를 주장하는 탓에, 전 가족은 고물 미니 버스를 빌려 머나먼 캘리포니아까지 가기로 결정한다. 영화는 이 콩가루 가족의 1박 2일에 걸친 좌충우돌 여행기이다.

유쾌하고 발랄하다고 해서 '빠져 죽거나 죽을 때까지 헤엄치거나(Sink or Swim)'로 대변되는 미국 중산층의 위태로운 현실을 이 영화가 외면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전체에 걸쳐 비정한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 안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냉정한 인간군상의 모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 비정하고 숨막히는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빠져 죽기 딱 좋은 처지에 놓인 이 가족은 그러나 끝까지 씩씩하게 그 여정을 통과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라는, 마지막 남은 보루를 확인하게 된다. 매우 미국영화스러운 구태의 연하고 위험한 결론이지만, 그런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영화를 다 보고나면 어쩐지 기운도 좀 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영화가 2006년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발표되었을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메이저 영화사에서 배급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의 원제목은 어린이 미인대회를 의미하는 <리틀 미스 선샤인>인데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미스 리틀 선샤인>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영화 전체로 볼 때 이렇게 바뀐 제목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서 어린 올리브의 존재는 그야말로 '햇살(sunshine)'이었기 때문이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마을 소식

완사넷 정기총회·조합원 소통의 날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이 지난 3월 21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완사넷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소액대출 시범사업 ▲공동교육 ▲연구학습모임 ▲조합사 간 협업 강화 ▲사회적경제 기획 기사 연재 등을 언급했으며, 이인숙 사회적협동조합드림사회서비스센터 이사장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정기총회 이후에 완주경제센터 텃밭당에서 제1회 조합원의 날을 기념하여 고기파티를 진행했다.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용범), 다정다감협동조합(대표 최은영), 완주떡메마을(원장 양정숙), 사회적협동조합양지들(대표 김정은),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대표 이용규) 등 각 조합사들이 화덕, 채소, 가래떡, 반찬과 식기, 딸기 등을 준비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종일 사무국장은 "이날 모두 풍족하게 먹고 나누며 즐겁게 지낸 것처럼 올 한 해 완사넷 조합원들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많길 바란다"며 행사 소감을 전했다.



일단 시작되면 일이 술술

농/촌/별/곡



차 남 호

4월하고도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요며칠 날씨가 심상치 않다. 느닷없이 눈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 때아니게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불어와 그야말로 평지풍파다. 그 바람에 꽃잎이 어지러이 난분분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기후가 길을 잃어버렸음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쩌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돌발현상이 아니라 기후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다. 지구 온난화가 북극의 온난화로 이어져 '북극 증폭 현상'을 불렀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수증기가 늘어나면서 강수현상이 더 격렬해지고, 4월에도 눈이 내리는 변칙적인 날씨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그리고 보니 올해 봄꽃은 여느 해만큼 화사하지 않았던 듯싶다. 개화 시기가 늦었을뿐더러 매달린 꽃송이도 성글어 보였다. 게다가 꽃잎은 왜 그리도 빨리 지는지. 벚꽃이 지는 가운데 아직도 노랗게 뭉개진 개나리, 빨갭게 타오르는 명자꽃, '은한이 상경인제'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배꽃. 그나마 한 가닥 춘정을 어루만지는 풍경이라고 할까. 뒷산 오솔길을 걸다가 눈에 띄는 두릅순을 따다가 살짝 데쳐 초장에 찍는 싱그러움은 봄날이 준 덤이다. 그렇게 봄은 오고 또 가는 것이겠지.

다행인 것은 시국이 '겨울공화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봄을 맞았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내란정국'은 그 우두머리의 과면으로 일단락됐다. 아직 사법처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역시 사필귀정이요,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8년 전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 세상은 온통 대선정국으로 빨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 보았듯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치관은 권력이라는 젓밥에만 온통 뉘이 나가 있다. 아무리 그게 현실정치라지만 이리다가 우리 세계는 머잖아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하긴 땅이나 파먹고 사는 주제에 기후변화니, 체제전환이니 거창한 얘기 주워섬겨봐야 뭐하나 싶기도 하다. 안 그래도 농사철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고담준론이나 늘어놓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

얘기다. 마지막까지 미련을 두었던 농한기도 이제 정말 안녕이다.

엿그제는 고산권벼농사두레 경작자회의가 열렸다.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바뀐 환경을 따져보고 두레작업 일정을 짜는 자리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범씨 담그기와 축 띄우기, 범씨 파종작업, 못자리 만들기, 모판 나르기 같은 두레작업이 펼쳐지게 된다. 회의에서는 작업공정을 자세히 점검하고, 준비사항과 개인별 작업지침을 확인했다. 올해도 새롭게 유기농 벼농사에 합류하는 회원들이 제법 되는 편이다. 늘 그렇듯이 경력이 오랜 이들은 덩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 새내기들은 높은 기대감 속에 그야말로 초보적 질문을 쏟아내며 눈빛을 반짝이게 마련이다. 벼농사두레의 공동경작은 그 역사가 어느덧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일을 앞에 두고는 늘 태산 같은 걱정도 짓눌리는 법이다. 그래도 일단 시작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술술 일이 풀려나가게 돼 있다. 이따금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지기도 하지만 수습하고 나면 그뿐이다. 사람들은 다시 하하호호 가던 길을 재촉한다.

올해 벼농사도 이렇게 막이 올랐다. 세월이 무심치 않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동과 놀이, 노동과 잔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신명나는 벼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도시가스 확대 방안 논의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4월 10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미공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익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의원 전원,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전북도시가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 ▲과도한 시설분담금 기준 ▲미공급지역 공동부담 협약 등 3가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완주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4%로 나타나지만, 단독주택 기준으로는 54.3%에 그쳐 체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급망 지원사업 수요조사 또한 일부 읍면에 한정돼 있어 전 지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공급배관 100m당 수요가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는 전남(45세대), 광주(34세대) 등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사업비를 지자체·사업자·주민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의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도 논의됐다.

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 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원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향긋한 봄 내음이 나는 4월,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 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이자!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수요 영화데이】

매주 수요일 오후 두 시! 청춘방앗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이번 달에는 '배트맨 시리즈-비긴즈-다크 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봉오동전투', '청살'을 함께 본다. 따뜻한 청춘방앗간에서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4월 17일, 24일 (매주 수) 오후 2시

【저속노화밥상】

느리게 즐기는 저속 노화밥상은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지난달 뜨거운 관심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찾아온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4월 17일, 24일 (매주 목) 오후 6시

참가비: 5,000원

【축구보는 짹짹이들 축구다큐】

청춘방앗간에서 '하오 축구다큐'를 길잡이 삼아 사람들이 모여 모여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봄에는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4월 22일, 29일 (화) 오후 7시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 하자!

진행정보: 4월 격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봄 기운과 함께 새로운 4월, 콧씨네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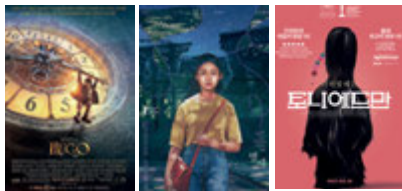
시골극장 콧씨네 4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4월 19일 (토) 오후 2시	휴고	판타지, 가족	전체 관람가
4월 26일 (토) 오후 2시	별새	드라마	전체 관람가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4월 29 (화) 오후 7시	토니 에드만	드라마	청소년 관람불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토종씨앗 모종장터



고산농협 앞에서 열리는 토종씨앗과 모종의 장터! 완주토종씨드림이 주최하고 씨앗받는 농부 영농법인과 함께하는 이번 장터는 봄 농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진행정보: 4월 27일 (일) 오전 8시 ~ 오후 4시

장소: 고산농협 앞

완두콩 조합원 총회 열어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이 3월 3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지난해 운영 성과와 올해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운영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용규 이사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두콩도 피해가지는 못했다"며 "후원 독자 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파머컬처 텃밭 디자인 과정 참여자 모집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2025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수요맞춤형 교육 1탄 '소란과 함께하는 텃밭 디자인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완주 자연농모임 '가꿈'과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활방식, 그 모두를 아우르는 삶의 철학인 파머컬처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참가비 10만 원은 교육을 위한 재료비, 식비, 다과비 등 실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입금 계좌는 선정 완료된 참가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의: 가꿈 010-8226-5245 / 완사넷 063-905-5050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5 찾아가는 마을돌봄 시작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완주형 서로돌봄'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2025 찾아가는 마을돌봄」 활동이 4월 8일부터 시작됐다. 찾아가는 마을돌봄은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이 직접 마을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2년간 약 60여 개 마을을 찾아가,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돌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마음산책 이끔이' 교육과정에 더해 '건강지킴이' 교육과정까지 수료한 주민활동가가 한 팀(2~4인)을 이뤄서 한 마을을 6회씩 찾아가 어르신들을 만난다.

올해의 마을돌봄 커리큘럼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이다. 건강한 마음을 위한 '마음 털어놓기'와 건강한 몸을 위해 체온, 혈압, 혈당 등 주요 건강지표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조별로 주민활동가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체조, 댄스, 공예,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마을돌봄 활동은 총 10개 팀 28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해 10개 마을을 격주로 6회씩 방문(총 60회)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25년 교육 수료생을 포함해서 총 12개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5년 주민활동가 보수 교육 운영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주민활동가보수교육-집수리 현장실습교육을 지난 3월 29일 진행했다. 이 사업은 22년~24년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집수리부캐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보수교육 후 완주군 역량강화사업의 배후마을서비스 간단집수리 활동과 연계하고자 진행됐다.

완주군 역량강화사업의 집수리부캐학교를 수료하고 간단집수리 운영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활동가와 집수리부캐학교 운영진이 강사로 나섰다. 오전 현장실습교육은 봉동 원구만마을의 90대의 홀몸어르신이 살고있는 2개의 주택에서 2개의 조로 구성해 진행됐다. 강사진이 시범을 보이며 안방의 수명이 다 된 전등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마당에서는 교육생이 힘을 합쳐 구멍이 뚫린 방충망을 새 걸로 교체하는 작업 등 불편했던 소규모 집수리 활동 교육과 실제 수리 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오후에는 오전에 교육을 통해 습득한 방충망과 등을 교체해주는 작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십여 가구를 방문하여 간단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주민활동가보수교육-집수리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홀로 계신 어르신을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난다.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시니 덩달아 기분이 좋다. 교육을 통해 수리법을 잘 배우고, 후에는 간단집수리 운영반에 합류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간단집수리 현장실습교육은 2~3분기에 각 1회씩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완주군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간단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간단집수리운영반과 함께 간단한 주거 환경 수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이자 지원

완주군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8~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였지만 올해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일 기준 완주군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기관별 직인이 포함돼야 한다. 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돼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우리 마을 문화이장 8기 모집



완주문화재단에서 마을에 필요한 문화 활동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문화 매개자이자 주민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이웃과 함께 문화를 누리고 싶은 완주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모집기간: 5월 2일 (금) 까지

활동기간: 2025년 5월 ~ 12월(최대 3년 활동 가능)

- 활동내용:**
- 문화이장 역량강화 워크숍(5회)
 - 완주문화현장 모니터링(2~3회)
 - 권역별 문화이장 네트워크(2회)
 - 활동 공유회(2회)

※ 워크숍 및 모니터링, 공유회 참여 시 교통비 또는 소정의 회의비 지급 예정

※ 활동 내용은 사업 일정 및 참여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방법: 이메일(mail@wfac.or.kr) 또는 방문접수(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문의: 완주문화재단 문화콘텐츠팀 (063-262-3955, 070-7777-3707)



문화공동체 활성화 '메이드 인 공공' 지원사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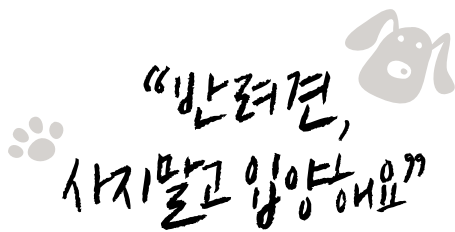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문화공동체 활성화 '메이드 인 공공'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 공동체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완주형 문화공동체를 발굴 및 지원한다. 공모내용은 준비형, 성장형, 확산형 총 3가지다. 모집기간은 매월 공고일부터 매월 20일까지이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모집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거나 070-4291-7636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기간: 공고일 ~ 매월 20일까지

- 준비형(1단계, 2단계):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부터

- 성장형/확산형: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부터

공모대상: 완주군 소재 3인 이상 소모임 및 공동체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아리(♀)
갈색 누제비에 핑크 코가 매력적인 아리!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5kg

나이: 2살 추정

건강상태: 심장사상충 양성

(입양 시 연계병원 이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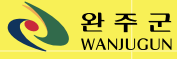
아리는 친화력이 좋고 애교가 정말 많다.

보호소 철장에 매달려서 자기를 보라며 매우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사람에게도 잘 안긴다. 이런 아리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전국최초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갱신도시 완주

5월 3일(토) 코스프레하고, 완주군청으로 오세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

어린이날 대축제

“미래의 완주 히어로! 오늘은 내가 주인공”

2025. 5. 3. (토) 오전 10:00~
완주군청 어울림마당



신나는 공연 &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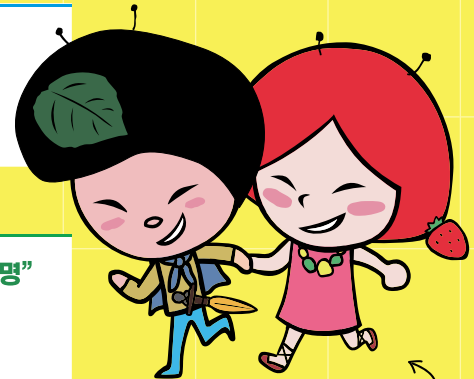
- 코스프레 및 퍼레이드 “코스프레 어린이(500명) 사전모집 및 퍼레이드(10:30) 참석”
- 다채로운 공연 “아동이음합창단, 마술·버블공연, 인형극, 가족뮤지컬 신공쥐(사전예약) 등”
- 아동권리책 전시 및 체험 “실감 스튜디오, 실감콘텐츠 체험관 등(중앙도서관)”

다채로운 체험 & 문화활동

- 다채로운 체험 운영 : 디지털 및 과학기술 체험, 창의체험 프로그램 등 1,000명
- 완주북합지구 누에 “누에야 놀자” : 섬유·도예·목공놀이, 채워가는 미술관 등 “사전예약”
- 완주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푸드존 운영 및 먹거리 체험 그린키킵(사전예약)

어린이·청소년 참여

- 아동친화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300명(유아, 초등생 대상) “사전예약 200명, 현장접수 100명”
- 아동권리골든벨(아동청소년 누구나) “사전예약 300명, 현장접수 200명”
- 어린이 바둑체험 및 대회 “사전예약 100명”



완주언니&완주오빠



녹색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가져와요

커피·음료부스 500원 할인

주최·주관 | KKEA 한국문화예술교육사연합회 완주지부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아동청소년홈페이지
(www.wanju.go.kr/wanjucfc) 참조

